

# 베니스 영화제 화제작 광주서 만난다



‘2026 베니스 인 광주’...15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국제영화제의 주요 작품들을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오는 15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2026 베니스 인 광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화제작 11편을 지역 관객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되던 행사를 지난해부터 광주에서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베니스비엔날레재단,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서울아트시네마, 영화진흥위원회,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상영작은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5편, 비경쟁 부문 4편, 베니스 클래식 부문 2편 등 총 11편이다. 평일에는 하루 1-2편, 주말에는 2편씩 상영된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토니 세르빌로가 이탈리아 대통령 역을 맡아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 경쟁·비경쟁·베니스 클래식 등 11편 작품 소개...영화 연대의 장

남우주연상을 받은 ‘라 그라짜야’(파올로 소렌티노)가 있다. 소렌티노 감독은 영화 ‘그레이트 뷰티’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수상한 감독이다.

이와 함께 길거리 캐스팅으로 선발된 비전문 배우들의 연기가 주목받은 ‘그 해, 학교에서’(라우라 사마니), 이탈리아식 희극의 대표작 ‘위대



◀라 그라짜야  
▼위대한 바람둥이



한 바람둥이’(안토니오 피에트란젤리)도 상영된다.

또 무성영화와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 스타일의 ‘오르페오’(비르질리오 빌로레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갱스터 영화 ‘죽이는 건 지겹다: 암살자의 자서전’(다니엘레 비카리) 등의 작품이 스크린에 걸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대안영화교역소’를 기치로 해외 문화도시와 광주를 잇는 영화 교류

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주한케벡정부 대표부와 함께 매년 6월 ‘케벡내셔널데이’를 개최하며 광주와 케벡 간 문화 교류를 이어왔다.

또 지난해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파리 귀스타프 에펠 대학과 협력해 파리에서 5·18 사진전을 열고 광주 제작 독립영화를 상영하며 광주의 역사와 예술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2026 베니스 인 광주’ 역시 이러한 국제 협력의 연장선에서 베니스와 광주를 영화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상훈 이사장은 “케벡과 파리, 베니스로 이어진 국제 영화 교류는 광주가 세계 문화도시와 지속적으로 호흡해 온 과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영화적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영 시간표와 작품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1만원으로 무비에 홈페이지(<https://moviee.co.kr/>)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현장 예매도 가능. /최명진 기자

## 매화에 담은 기개·생명력...‘고매화’展

### 황순철 작가 개인전 오늘까지 무등갤러리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의 기개가 대형 화폭 위에 펼쳐진다.

황순철 작가의 24번째 개인전 ‘고매화’전이 1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랜 시간 매화를 주제로 작업해 온 작가가 전국 각지의 매화나무를 찾아 그린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에는 총 32점이 출품됐다. 대부분 50호 이상의 대작으로, 80호와 100호 작품은 물론 400호

에 달하는 대형 화폭까지 포함돼 매화나무의 생명력과 기개를 더욱 강렬하게 드러낸다.

그동안 개인 화실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작품을 보여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24년 만에 전시장에 매화 그림들을 내놨다.

화엄사 매화를 비롯해 백양사의 고분매 등 전국 각지에 자리한 매화나무들이 화폭에 담겼다.

작가는 담양의 300년 된 고목 매화인 미암매, 화순 임대정 원림의 매화나무, 경남 김해건설공고 교정에 있는 와룡매 ‘김해매’ 등 여러 지역을



‘독수매’

찾아 현장에서 스케치하며 작업을 이어왔다. 작품 가운데에는 최소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걸쳐 완성된 그림도 있다.

대표작으로는 ‘독수매’와 ‘화엄사 각황 흥매’가 꼽힌다. ‘독수매’는 ‘홀로 지킨다’는 뜻을 지닌 매화나무를 그린 작품으로 선비정신과 절개, 바른 기개를 상징하는 매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대표작 ‘화엄사 각황 흥매’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는 매화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매년 봄 화엄사를 찾아 흥매화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화폭에 옮겨왔다.

황순철 작가는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존재로, 인내와 회복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매화의 생명력과 강인한 의지를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올해 종사자 필수교육 운영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이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종사자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29개 지역아동센터 약 80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기존 시설장과 기존 생활복지사, 신규 시설장, 신규 생활복지사 등 대상으로 구분해 총 14회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202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 안내 ▲보조급 집행 기준 ▲인권교육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 종사자들과 질의응답과 의견 공유를 진행한다. 특히 운영지침과 보조급 사용 기준 교육은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맡아 행정 절차와 실제 사례 중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신규 종사자를 위한 교육 과정도 별도로 마련됐다. 공통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희망이음 시스템 이해 ▲아동 발달 및 지도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추가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신안선 ‘자단목’ 사전 공개

### 한국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25-27일 목포서...13일까지 참가 접수

한국 수중고고학의 출발점인 신안선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앞두고, 14세기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실상을 보여주는 핵심 유물 ‘자단목’이 일반에 사전 공개된다.

10일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에 따르면 오는 25-27일 사흘간 목포시 연구소 강당에서 ‘신안선 출수 자단목(자진) 1천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14일 개막 예정인 특별전 ‘신안선 자단목이 들려주는 해상 교역(가제)’을 앞두고 해양유산 조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선은 1323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원대(元代) 무역선으로, 1976년 신안 해역에서



발굴되며 2만4천여점의 유물이 출수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단목은 동남아시아와 인

도에서 생산돼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유통되던 고급 목재다. 선적 상태로 대량 발견된 사례가 드물고 표면에 문자와 기호, 가공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국제 교역망과 유통 체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사전 공개 행사는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 총 30명(하루 10명)을 접수한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올해 출수 자단목 1천여점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촬영과 정밀 실측, 3차원(3D) 데이터 구축 등 체계적인 원형 기록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